

## 우선순위의 충돌: 현실인가, 언약인가

본문: 창세기 25:27-34

유튜브: <https://www.youtube.com/live/tZxdn2WbQcs?si=GvbkSrtItF1eOmt> (주소 클릭-> 열기 클릭)

### [새벽 말씀 묵상]

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, 팍팍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곤 합니다. 오늘 본문은 **영원한 가치와 당장의 필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을** 보여줍니다.

사냥에서 돌아와 극심한 허기를 느낀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귀한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. 이 장자권은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닙니다. 그것은 **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언약의 통로**입니다. 그러나 에서는 당장 배고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팔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. 성경은 이런 에서의 불경건한 태도를 가리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 직장에서의 승진, 더 편안한 생활,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**붉은 팔죽**을 얻기 위해 **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** 있지는 **않습니까?** 당장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.

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**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최우선순위에** 두시길 바랍니다.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든 현실을 친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도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, **흔들림 없이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복된 삶**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
### [말씀 관찰]

1. 사냥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던 에서는 아굽의 붉은 팔죽을 먹기 위해 자신의 무엇을 팔아넘겼습니까? (창 25:33)
2. 성경은 떡과 팔죽을 먹고 미련 없이 떠난 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(창 25:34)

### [삶의 적용]

1.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나 결핍 때문에, 예배와 신앙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뒤로 미룬 적은 없습니까?
2. 세상의 인정이나 편안함이라는 '팔죽 한 그릇'을 거절하고, 내가 오늘 굳게 지켜내야 할 영적인 장자권(언약의 자리)은 무엇입니까?

### [오늘의 기도]

당장의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.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.